

복덕이 박하면 선행을 해도 병을 못 물리친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3)

세 가지 작은 재앙

검초(劫初) 때 사람의 수명은 4만 살이었는데, 그 뒤에 차츰 줄어들어 백 살에서 그치고, 점차로 다시 열 살에까지 이르며, 여인은 태어난 지 다섯 달이면 모두 시집을 간다. 인간의 수명이 열 살일 때에 세 가지 소검(小劫)이 있는데, 첫째가 도병(刀兵)검이고, 둘째가 기아(飢饉)검이며, 셋째가 질병(疾病)검이다.

도병검이라 함은, 사람들이 대부분 삼복에 물들어 열 가지 악한 법만을 행하고, 만일 하나의 선행이라도 하는 이가 있다면 그를 사람들이 함께 비웃고 어리석다 여기면서 업신여긴다. 서로가 오로지 악행만을 가르치므로 착한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된다. 오곡은 나지 않고 좋은 맛은 사라지며, 비단과 겹베는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풀피와 죽정(죽)만 먹고 풀을 엮어 옷으로 삼아야 한다. 칠보는 사라지고 모래와 돌은 가득 차며, 땅에는 가시나무가 나서 가지와

은 선행을 하나 병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은 복덕이 박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병이 들면 바로 죽는다.

신들이 내려와 때리고 치며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다가 그의 정신이 죽으면 가지고 간다.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면 모두 천상에 나는데 이를 질병검이라 한다.

만일 하루 낮 하룻밤만이라도 살생을 하지 않는 계율을 지키면 도병검 동안에는 나지 않으며, 만일 한 알의 하리륵(인도 고원지역에서 자라는 곡목으로, 달걀 모양의 과일 열매를 말한다) 열매라도 승가에 보시하면 질병검 동안에는 나지 않으며, 만일 한 술의 밥이라도 승가에 보시하면 기아검 동안에는 나지 않는다. 이 염부제에는 악한 겁이 서로 일어나거나 다른 장소에는 좀 적다.

염부제(불교의 우주관에 나오는 세계의 명칭으로, 불전에서는 인간세계의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에서 도병검이 일어나면 다른 장소에서는 거둬서만 낼 뿐이고, 염부제에서 질병검이 일어나면 다른 장소에서는 기력이 쇠약해질 뿐이며, 염부제에서 기아검이 일어나면 다른 장소에는 목마르고 배가 고플 뿐이다. (《장아함경》 22권, 《삼소검경초》, 《잡아비담심론》 14권에 나온다.)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삽화·강병호

있사귀는 크진 작진 모두가 같이 되어서 아름답거나 나무를 모두 베어 거꾸러뜨린다. 땅은 도랑이 다하면서 물결이 솟구쳐 언덕을 쓰러뜨리고, 강과 하천은 점점 넓어지고 대지는 점점 줄어들다.

도병검이 한 번 일어나는 데에 7일이 걸리는데, 손에 잡히는 풀, 나무, 기와, 돌 등 모든 것이 칼로 변해서 서로가 빼앗아 서로 죽이려고만 하는 것이 마치 사냥꾼이 사슴 떼를 우연히 만난 것과 같다. 그중에 지혜로운 이가 있으면 멀리 심산유곡 인적이 없는 곳에 가 숨어서 열매를 먹고 물을 마시며 10년을 마친다. (《장아함경》에는 “스스로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인간에 나온다.”고 적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모두 죽이게 되면 지옥에 나는데, 이를 도병검이라 한다.

기아검이라 함은 사람들이 대부분 범답지 못하고 어리석으며 사된 소견을 지닌 것이다. 재물을 지켜 보시하지 않으며, 흥수와 가뭄으로 절기가 맞지 않아 밭에 씨를 뿌려도 수확하지 못하고, 쌀도 점점 소진되어 난알조차 귀하므로 죽정(죽)과 겨를 끓여서 고르고, 거리의 낙엽으로 스스로 연명한다. 죽정이와 잎이 다하면 땅 밑을 파서 초목의 뿌리를 먹으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이는 먼저 죽는데, 죽은 사람을 다시 함께 먹으며, 그것조차 다 먹으면 도살장이나 무덤까지 가서 해골들을 주워 죽을 끓여 마시며 살아간다. 그러다 굶주려 다 죽게 되면 아귀 가운데 나는데, 이를 기아검이라 한다.

질병검이라 함은, 사람들이 모두가 바른 소견으로 열 가지 선행을 수행하지만 질병이 많아서 별다른 계획조차 없고 의사와 약품도 거의 없다. 비록 많

검(劫)은

검파(劫波)라고도 한다. 세계가 성립되어 존속하고 파괴되어 공무(空無)가 되는 하나하나의 시기를 말하며, 측정할 수 없는 시간, 즉 몇 억만 년이나 되는 극대한 시간의 한계를 가리킨다. 그 길이를 《잡아함경(雜阿含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방과 상하로 1유순(由旬: 약 15km)이나 되는 철성(鐵城) 안에 겨자씨를 가득 채우고 100년마다 겨자씨 한 알씩을 꺼낸다. 이렇게 겨자씨 전부 다 꺼내어도 검은 끝나지 않는다.

또, 사방이 1유순이나 되는 큰 반석(磬石)을 100년마다 한 번씩 흰 천으로 닦는다. 그렇게 해서 그 돌이 다 마멸되어도 검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 《대지도론(大智度論)》 등에 도 같은 내용의 비유가 있다. 앞의 것을 겨자씨(芥子劫), 뒤의 것을 반석검(磬石劫)이라고 한다.

검을 소(小)·중(中)·대(大)로 나누어 이 세계의 성(成)·주(住)·괴(壞)·공(空)이 진행되는 기간을 일대검(一大劫)이라고 하기도 한다. 부처님이 발생해서 성불할 때까지 수행에 소요된 시간을 삼아승기검(三阿僧祇劫), 백대검(百大劫)이라고 한다. 아승기는 무수(無數)라고 옮기며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③



거사·청년들이 절에 많이 왔으면

통도사 화엄법회에 가던 날

통도사 화엄산담에 갔었다. 한 달 내내 법문이 있었지만, 좀처럼 시간이 맞지 않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는데, 일요일엔 시식이 있다고 해서 가까운 도반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갔다.

새벽, 설법전. 일찍 간다고 했는데 우리보다도 더 일찍 온 사람들도 많았다. 조금 지나서 설법전은 발디딜 틈이 없게 됐다. 우리는 그레도 겨우 한자리 차지하고 앉았지만 계속 밀고 들어오는 인파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았다.

내가 앉은 바로 뒷자리와 옆자리에는 많은 보살들 틈에 거사님들이 몇 분이 앉았다. 여자 불자가 대부분인 법회에서 보기 드문 풍경이다. 나는 원지 보살들 틈에 앉아있는 거사님들이 무척 반가웠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방석도 없이 찬 바닥에 앉은 그들에게 내 방석을 내밀고 준비해 간 따뜻한 차도 한잔씩 건넸다.

조면인 나의 친절에 조금 어색해 하는 것 같아 “귀하신 분들이라서 드리는 겁니다.”고 했더니 거사님들이 속수무책이며 빙긋이 웃었다. 복잡한 분위기가 어수선하기도 하고 어색해진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거사님들에게 사탕도 하나씩 건넸다.

나는 어쩌다 법회에서 거사님들을 보면 전부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반갑다. 그래서 뭐든 잘해주고 싶어진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 남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성경책을 끼고 잘들 가는데, 법회 있는 날에는 대부분 여자 신도들과 할머니들뿐이다. 그만큼 절에서는 거사님들 보기가 쉽지 않다.

나의 작은 친절로 인해 그들이 절과 친해져서 절에 오는 일이 즐겁고 기꺼운 나들이길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다보면 한 명의 거사님이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열 명이 되고, 더 많은 거사님들이 절을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전 시식 의식을 마치고 점심공양 후 법문을 듣기 위해 다시 법당이 모였다. 마천가지로 벌써 법당은 가득하다. 이번엔 내 곁에 대학생인 듯한 아들이 엄마랑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정말 보기 좋았다. 방석을 얻지 못했는지 그들도 또 맨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나는 내 방석을 학생에게 주고, 나는 가지고 간 스승을 깔고 앉았다.

그레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거사님들과 마천가지로 이런 젊은 청년들로 이 법당이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 불교는 참으로 든든할 텐데, 생각했다. 이 청년도 처음엔 스마트폰 가지고 놀더니 나의 관심을 의식했는지 금방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법문을 듣기 시작했다. 나의 작은 마음 씀이 그에게 친절로 받아들여지고, 그 친절로 그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오늘 들은 법문보다 더 큰 보람일 것으로 생각했다.

지금 아이들과 청년에게 부처님 말씀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잘 전해서 그들이 불교와 친해지고, 우리 불교의 기둥으로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훌륭한 법문이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귀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며 돌아왔다.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겁 난조우 (無上信心 微妙法 百千萬劫 難遭遇)
아금문견 득 수지 원해여래 진실의 (我今聞見 得受持 願解如來 真實意)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발원 드리웁니다.

내가 부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불교를 만났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며 최고의 값진 삶이었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지난 세월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부처님을 믿고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을 것 같다. 나는 시골 큰 연못이 있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라면서 여름엔 큰 도랑에서 오빠와 물고기를 잡고 놀았다. 그런 고기들을 동네 사람들은 반찬으로 해먹었다. 또 오빠를 따라 논두렁 옆 개울에서 미꾸라지들도 잡았다. 그것도 아주 재미있게 많이 잡은 날은 기분도 좋았다. 엄마는 잡아온 미꾸라지를 추어탕을 끓여주고 식구들은 맛있게 먹었다.

들이 나가 버들강아지 풀을 뜯어 메뚜기들을 잡아 목에 주렁주렁 꿰어 들고 왔고, 다음날 어머니는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셨다. 그러면서 한 번도 미안해하거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를 비롯해 시골의 아이들은 주로 그렇게 자랐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부터는 어느 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알았고, 스스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것을 알았다. 죽은 목숨마저도 마음 아파하게 되었다. 늦게나마 참회의 마음으로 물들어 있는 나를 생각하면 부처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이제 황혼의 나이에 지난 날 철없이 지은 죄 모두 모아 마른 풀을 불태우듯 소 소멸시키고 싶은 심정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린다. 지금까지 불법을 몰랐다면 태산 같은 죄를 안고 인생을 회향할 뻔했다.

그 뿐일까. 용렬한 성질을 함부로 사용하고 뒤돌아 볼 줄 모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었을까. 지금 나는 굳이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인연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적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부처님을 믿고 따르려는 서원을 한다. 가능하면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일으키지 말아야겠다고 기도한다. 그래서 일체 원수와 적을 만들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일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한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 내지: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지: 레자크지 옴셋 4°
• 제본: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220mm×310mm



11호~17호 법화경(한문) 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 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리 / 춤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 구성: 한지날장 • 크 기: 636mm×313mm

※ 여러종류의 사경책·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지백팔사경 5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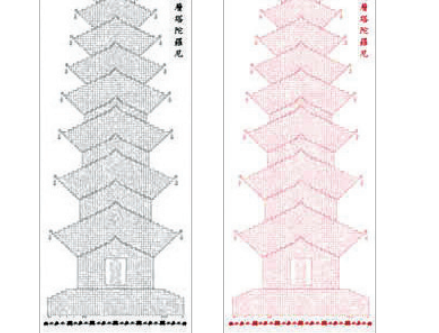
26호 신묘장구대리(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춤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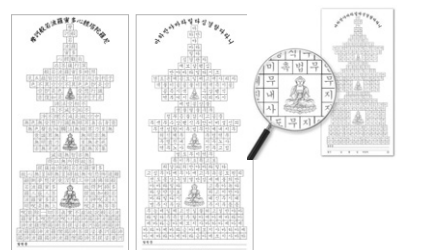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가 20,000원(1권)
• 내지: 한지 108장 • 표지: 레자크지 옴셋 4°
• 제본: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435mm×300mm

사경지

★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할인가 8,000원(20장 이상) 정가 10,000원
• 종이 케이스포함 / 한지날장
• 75cm×210cm (먹색, 적색)
• 손으로 직접 뜬 전통 재래 한지



★ 반야심경 탑사경(한문·한글)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 한지날장 / 63.6cm×31.3cm



<p>한지입출대길(大/2도) 할인가 12,000원 大 (10×43cm) 정가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100매 비닐포장</p>	<p>경면삼매삼재부 할인가 6,000원 • 포 장: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10×15cm / 9×14cm</p>	<p>경면삼재부 할인가 6,000원(100매) • 크 기: 9×20cm • 포 장: 100매 비닐포장</p>
<p>삼매 삼재품이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가 1,000원 • 포 장: 봉투 삽입</p>	<p>경면한지 불설삼재품이 할인가 1,000원(200개 이상) 정가 1,200원 • 포 장: 봉투 삽입</p>	<p>한지 삼재품이 할인가 700원(200개 이상) 정가 900원 • 포 장: 봉투 삽입</p>
<p>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정가 250원 • 포 장: 봉투 삽입</p>	<p>[인견한지]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400원(450개 이상) 정가 600원 • 포 장: 봉투 삽입</p>	<p>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가 1000원 • 포 장: 봉투 삽입</p>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 서적, 사경지, 연등, 염주, 향, 양초, 다포, 4.8용품, 백중용품]